

2010년 3월 26일 행실의 중요성(100111)-정명심

대구 스타 교회

홀로 본당에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들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며 눈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에게 고했듯이 나 역시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달려 오라. 내가 너희를 내 품에 꼭 안으리. 영혼을 맹세하자.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행실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쉬운지 여쭙었습니다.

내 심정 알고 행하는 것이 내 일을 해주는 것이다. 행실하는 것은 내 말을 귀히 보았다는 것이고, 나를 무시치 않았다는 것이며 나와 하나되고 싶다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이며 나와 한몸 한뜻이 된 자로서 변화했다는 증거다. 행신했다는 것은 최고로 나에게 도달했다는 것이고 내 몸이 되어 영원히 저 천국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이며 정말 그렇게 살 자이다. 몸부림 쳐야한다. 쉽지 않지만 해보야한다. 해보야 내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자인지 얼마나 고생되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행실하면 너는 내안에, 나는 너희안에 거하여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한몸이 되어 절대 헤어짐이 없다. 행실, 너희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 행실이 온전한 자, 나를 알고 나만 바라보는자, 나의 영원한 반려자. 행실속에 고생됨을 내가 안다. 하지만 포기치 말자. 천국이 눈앞이다. 조금만 조금만 걷자. 네 앞에 금은 보화, 빛나는 결정체 형형색색의 보석들 입이 떡 벌어질 이 모든 축복, 다 너희 것이로다. 너희 만의 것 준비되었도다. 너희만 준비하면 된다. 우리 조금만 더 분발하여 힘을 내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행실의 중요성 알고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하자. 행실 전에는 너희의 기도가 중요하다. 행실로 옮기려면 힘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힘의 근원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 내게 구하고 힘을 받아라. 넉넉히 주리라. 무한히 받아라. 그 힘받아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너희 같은 죄인을 초인으로 만든다. 주저앉아 패자가 될 것이냐. 나의 힘 받아 초능력자 되어 날아다닐테냐. 행하였을 때 나의 전지 전능함을 느끼리. 고로 행실이 필요하며 행실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결국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행하자. 행하자. 힘들어도 생명길 행하자. 언젠가 그 길 끝에 나 여호와 서 있겠노라. 사랑한다. 섭리야 모든 섭리의 신부들. 너희의 소망 나 여호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섭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